

딱 한 달만 목발이 필요하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전국적 실시
 보장구의 경제적 활용, 가입환자의 생활 편의 제공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영등포북부지사

살 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짧게는 몇 일이나 몇 달간 목발이나 휠체어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깃스를 벗어던지고 완치가 된 후엔 이내 흉물스런 물건이 되어버리곤 하는 의료 보장구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버리자니 아깝고, 재활용하려니 제 주인 찾아주기도 쉽지가 않다.

입원환자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목발이나 지팡이 등의 보장기구를 필요로 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이 지난 4월부터 서울,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보장구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가입환자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어 차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의료 보장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의료진의 자문과 초기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와 보관이 용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들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총 4가지 품목으로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이다. 휠체어의 경우 성인용, 아동용, 기능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들도 2~3가지의 종류로 구비하고 있어 어느 정

도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입원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사용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호응을 얻으며 보장구 무료대여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을



통해 현 사업에서 제외되는 보장구들에 대한 환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등)의 경우 맞춤형에서 기성화 된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업 확대 시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등은 고가 또는 의사소견이 필요한 보장구이므로 추후 사업 확대 시 반영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예

정이라고 한다.

보장구는 안내센터인 병원(일산병원, 아주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을 통하여 현재 서울지역-구로지사, 강원지역-춘천지사에 마련된 대여센터에서 보급이 되며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각 1개소가 선정·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측에서 구입한 보장구 외에 각 가정(단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장구에 대하여 사업에 활용하고자 기증을 받고 있다. 기증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로 수리, 수선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게 된다. 기증방법은 공단지사에 직접 기증하거나 전화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보호팀 : 1588-1125)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 중 발생하는 의료이용절차 및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환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안내해주는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는 보장구무료대여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직접 의료이용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